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 입학식 및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

- 제6기 입학생 31명 맞아... 동문 김석중 남아식품 대표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오룡관에서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GCCA) 제6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기후변화아카데미(GCCA)는 3월 22일 (수) 지스트 오룡관에서 제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전창덕 연구원장, 김명중 지스트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지스트 주요 보직자와 입학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아카데미가 각 분야 경영자들과 국내 최고 리더들 간의 귀중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중 5기 동문(남아식품 대표)의 발전기금 1천만 원에 대한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남아식품은 복합 유산균을 식품에 접목하는 여러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전문기업으로, 축산물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축산물 제조·가공까지 사업을 확장해 피자 토핑을 전국에 납품하고 있으며 자회

사인 JS바이오컴퍼니(주)에서 복합 유산균 식품 관련 지적재산권 및 특허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김석중 동문(남아식품 대표)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김석중 동문, 김명중 지스트 아카데미 원장)

김석중 동문은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기후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스트 아카데미는 기술경영아카데미와 기후변화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글로벌 경영전략과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아카데미는 체계적인 CEO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최고 기후경영자과정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약 180여 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